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주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술가의 존재에 대한 초상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민

예술가의 존재에 대한 초상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주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민

# 인 준 서

김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의 2010년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과정과 표현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존재 즉, 예술가로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삶의 고통과 열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하듯이 본인 또한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받으며 언젠가는 그들처럼 역사의 한 줄에 남기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면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작품을 창조해내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가 왜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런 고민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예술가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 고흐, 프리다 칼로와 같이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예술가들의 인생과 작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되었다. 본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작품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을 보며 반성과 위로, 자극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명 예술가의 초상 조각을 통해 예술가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안에 그들의 삶과 작품을 재해석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은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삶과 존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의 삶의 과정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가의 고통과 애환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예술가의 초상을 통해 예술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술가와 대중들과의 소통, 즉 예술가가 대중들로부터 고립된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창조의 열망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였다. 서론에서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와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론 1절에서는 본인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 초상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거의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는지 탐구하였다. 또한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 중에서 유명인을 소재로 다룬 작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본인 작품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2절에서는 본인 작품 표현에 특징에 대하여 분석했다. 본인의 조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납작한 조각의 표현과 모든 작품에서 동일하게 보여 지는 안경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된 자화상과 본인의 일상을 담은 드로잉을 분석했다. 3절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작품의 제작과정과 내용을 분석 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 작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	4
1) 초상의 개념과 역사 .....	4
2) 예술가의 자화상 .....	5
3) 팝아트에 나타난 초상 .....	8
2. 작품의 표현방법 .....	10
1) 납작한 조각의 표현 .....	10
2) 조각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표현 .....	12
3) 안경으로 가려진 예술가의 눈 .....	15
4) 영상으로 표현된 자화상 .....	18
5) 일상의 드로잉 .....	19
3. 작품 분석 .....	21
III. 결론 .....	39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Frida Kahlo, FRP,안경,레진, 65x16x72cm, 2010 .....	21
【작품2】 Vincent van Gogh, FRP,안경,레진, 70x17x72cm, 2010 .....	23
【작품3】 Pablo Ruiz Picasso, FRP,안경, 46x16x40cm, 2010 .....	25
【작품4】 John Ono Lennon, FRP,안경,레진, 38x12x45cm, 2009 .....	27
【작품5】 Michael Jackson,FRP,안경,단추, 체인, 큐빅, 45x12x43cm, 2009 ...	29
【작품6】 시인 이상, FRP,안경,레진, 86x21x90cm, 2010 .....	31
【작품7】 소설가 구보 박태원, FRP,안경,레진, 80x20x70cm, 2010 .....	33
【작품8】 Artist's way, video, 1min 45sec, 2010 .....	35
【작품9】 드로잉, 종이에 연필, 18x25cm, 2008-2009 .....	37

## 도판 목록

- <도판1> <예리고의 두상>, 예리고, B.C 7000년경, 요르단 암만 고고학 박물관
- <도판2>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15세기경, 패널에 유채, 77x53cm,  
루브르 박물관 소장
- <도판3> 반 고흐,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54.5x65cm,  
오르세 미술관 소장
- <도판4> 반 고흐, <귀를 자른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60x49cm, 런던  
코돌드 미술관 소장
- <도판5> 프리다 칼로, <부러진 척추>, 1944년 메소나이트에 캔버스, 유화,  
40x30.7cm, 멕시코시티, 돌로레스 올메도 소장
- <도판6> 피카소, <자화상>, 1901, 유채, 81x60cm, 파리, 피카소미술관 소장
- <도판7> 리차드 해밀턴, <나의 매릴린>, 1965년, 사진프린트 스텐실,  
84.3x69cm
- <도판8> 제프쿤스, <마이클잭슨과 버블스>, 1988년, porcelain/ceramic blend  
106x177x83cm
- <도판9> 앤디워홀, <25개의채색 마릴린>, 캔버스에아크릴릭, 208.9x169.5x5.5cm  
텍사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소장
- <도판10> 프리다 칼로의 사진

## I. 서론

현대의 예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 세계가 다양하게 변해가면서 예술가들은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는 20세기 이후부터 발달된 정보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대미술의 표현의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술의 표현 방법과 예술가의 역할 또한 다양해졌다. 예술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출함으로써 대중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대중문화를 차용한 작품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간격을 좁히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술 표현 방법과 예술에 대한 인식은 다양해졌지만 이 모든 예술작품을 창조해 내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술가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술가의 주관적 창조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가 끝난 르네상스 시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예술가는 작품에서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어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부터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작품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존재, 즉 작품에만 몰입해 세상을 등지고 사는 특이한 존재라는 예술가의 보편적인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고뇌에 찬 화가의 일생이나 괴팍한 성격으로 순탄치 못한 삶을 산 예술가들의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심지어 술주정이나 문란한 생활 등 자기 파괴적이고 지극히 불행한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대중들이 바라보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수세기가 흐르면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도 예술가들은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비평이나 저널, 교육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면서 때로는 예술가의 삶이 그들의 작품 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받기도 하였다.

본인 역시 과거의 예술가들의 과란만장한 삶의 기록을 보면서 존경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작품에 감동받으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것만 같았던 예술가로서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치 않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작품을 그리고 만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술가들은 왜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그러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더 좋은 작품에 대한 열망과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해왔다.

그것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다. 예술은 인간의 자기 확인의 행위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와 이 세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피들러<sup>1)</sup>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콜링우드<sup>2)</sup>에 의하면 그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아울러 본인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과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저 막연하게 대단한 예술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작가이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본인의 작품에 예술가들의 초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술가들의 초상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초상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지인 동시에 내면을 담고 있는 차별화된 기호이기 때문이다. 즉 예술가의 초상은 단순한 얼굴이 아

---

1) 콘라드 피들러 (Konrad Adolf Fiedler), 사상가 대표적 논문 <예술활동의 근원>을 1887년에 발표하고, 1895년에 사망한 피들러는 바로 19세기 후반의 생생한 증인이었다.

2) R.G.콜링우드(Robin George Colling wood) 사상가 1889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 가까운 소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그 지역적인 특징이 농후하게 남아있던 19세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예술의 원리를 1938년 출판하였다.

나라 예술가로서의 존재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예술가들의 초상을 조각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유명 예술가를 초상조각으로 제작해 제시함으로써 예술가의 얼굴을 통해 그들의 삶을 형상화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의 초상은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길로 나가면서 본인이 느끼는 내면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드로잉 작품 역시 예술가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로잉은 칫솔, 난로, 맥주캔 등 본인 주변의 물건들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는 작가의 일상임과 동시에 이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삶의 과정이 드러나는 작업이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예술가라는 존재”의 큰 틀 안에서 전개해온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과 작품세계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인의 작품은 유명 예술가의 삶을 다룬 초상 작품과 영상으로 표현된 자화상, 그리고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본인의 일상을 다룬 드로잉 등 세 부분이다. 또한 작품 분석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초상의 개념과 역사, 예술가의 자화상, 팝 아트에 나타난 초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 1) 초상의 개념과 역사

초상이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한다. 인간의 신체에서 얼굴은 타인에게 가장 먼저 비춰지는 곳이며 사람의 내면의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기록되어 있고 인격과 성격까지도 담고 있다. 또한 얼굴의 여러 가지 신기한 면들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한 사람의 얼굴 모양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존재, 즉 유일무이하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초상화는 한 인간의 인생의 집약이며 역사의 기록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얼굴이나 자태를 묘사하는 초상화는 그 사람과 실제로 잘 닮아야 한다.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 인물을 그려내는 초상화라는 장르에서는 대상 인물과의 닮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초상화가 사실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는 재현 예술임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터럭 한 올이라도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하에 화가들은 진력하여 왔으며 관상자의 경우에도 칠분모(7/10의 성취도)면 족하다는 엄격한 감식안이 작용하여 왔다.<sup>3)</sup>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초상 작품은 소위 <예리고(Jericho)의 두상> (도판1)이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의 두개골을 오브제로 하여 거기에 석고를 입혀서 복원한 것으로 눈은 조개껍질을 박아 넣었다. 두개골이 발견된 곳의 땅 끝에는 두개골의 주인공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묻혀 있었다.<sup>4)</sup>

3) 조선미,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문예출판사, 2007, p.85

4) 안상성, <초상화란 무엇인가>학문사 1998, p.57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석상을 제작하고 이를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역시 황제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작품을 통해 황제 숭배를 강화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나 성모, 성인 등 오직 신에 대한 존경과 찬미의 도구로써 초상을 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비로소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초상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일상적이며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편적 이미지가 아닌 한 개인의 생김의 특성과 성격을 면밀히 관찰하여 표현하는 초상화가 탄생한 것이다. 초상에 표현된 인물들도 교황이나 황제뿐만 아니라 상인과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양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하였다.

즉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여러 인물들을 그린 초상화는 목적과 기능이 한층 다양해졌으며, 동시에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위상도 이전과 달라졌다. 화가들은 단순히 모델을 관찰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독특한 통찰력으로 개성을 표출하면서 과거의 장인의 위치에 있던 화가들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sup>5)</sup>이다. 그가 그린 <모나리자>(도판2)는 지금까지도 루브르가 자랑하는 대표적 초상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있을 만큼 초상이 예술작품으로서 본격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2) 예술가의 자화상

초상의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화가 스스로가 자신을 묘사한 자화상도 등장하였다. 예술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sup>6)</sup>는 생전에 자화상을 많이 남겼다. 그의 생애는 슬픔과 고통의

---

5) Leonardo da Vinci (1452-1519)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사상가. 15세기 르네상스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조각·건축·토목·수학·과학·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보였다.

6) Vincent Willem van Gogh(1853-1890)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작가. 어린 시절, 빈센트의 혼란과 정서적

연속이었고, 항상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자화상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지독한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한다. 반 고흐의 <자화상>(도판3)에서 보이는 불안하고 강렬한 눈빛과 소용돌이치는 거친 붓 터치에 대한 갈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면 <귀를 자른 자화상>(도판4)에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힘이 없고 우울하다. 전체적 색감으로 녹색과 노란색을 주로 썼으나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며 붓 터치의 힘도 <자화상>(도판3)과 비교하면 한결 단순하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얼굴을 순간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통해 자화상에 담아낸다. 그가 그린 자신의 수많은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심상과 감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비추어 보고 싶은 당연한 욕망이었을 것이다.<sup>7)</sup>

평생 자신을 주제로 작업을 한 프리다 칼로<sup>8)</sup>는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 에, 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고 했다. 짙은 눈썹에 굳게 다문 입. 무표정한 얼굴 표정,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대담하고 솔직한 회화적 묘사는 그녀만의 불굴의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프리다는 화가로서 첫 자화상을 완성 한 후 47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작품의 주된 주제는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고통 받는 자아와 이를 극복하려는 자아의 표현이었다.<sup>9)</sup>

그녀의 1944년 작 <부러진 척추>(도판5)를 보면 그녀의 척추를 부러진 이오

---

고통을 더한 것은 고흐와 같은 날짜에 태어나 먼저 죽은 고흐의 형 빈센트가 가족의 목사관 정원과 붙어있는 묘지에 누워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빈센트는 매일 같이 자신과 똑같은 이름과 생일이 새겨져있는 묘비를 볼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고흐에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머릿속에 죽음을 심어주는 형국이었다.- 데릭 펠, <반고흐, 사랑과 광기의 나날>, 최일성 역, 세미콜론 2007 p.45

7) 베로니크 앙투안 앙데르생<새롭게 이해하는 한권의 미술사>최애리 역, 도서출판 마티 2005 p.82

8) Magdalena Carmen Frida Kahlo y Calderon (1907-1954)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작가. 그녀는 6살 때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그로 인한 오랜 시간의 병상생활과 유년시절의 고독한 환경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발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25년 9월 17일,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기념일 오후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타고 있던 버스를 전동차가 들이받는 큰 사고를 겪는다. 그녀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온몸에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은 그녀를 불행하게 했다. 그녀는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며 무려 32번의 외과수술을 받아야했고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그녀를 평생 따라 다녔다. 프리다는 거의 1년 가까이 척추 교정용 코르셋을 착용한 채 병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끊임 없이 이어지는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잦은 외도로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9) 정금희,<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도서출판 재원, 2003, p.75

니아 양식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울고 있는 프리다의 온 몸에는 못이 박혀 있다. 이 그림에서 표현된 프리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가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피카소<sup>10)</sup> 역시 다양한 자신의 자화상을 남겼다. 이른바 ‘청색시대’에 피카소의 그림 중 <자화상>(도판6)은 상당히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의 절친한 친구 까를로스 카사헤마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그의 그림은 가난과 슬픔, 굶주림과 고독으로 점점 우울해져 갔다. 남청색 공간과 여윈 몸을 감싼 암청색 외투, 불거진 광대뼈와 창백하고 여윈 얼굴의 이 자화상은 결코 20세 청년이 아니라 삶에 지친 장년의 모습이다. 이 작품은 파리무대에 갓 데뷔한 피카소의 궁핍을 잘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눈언저리의 푸른색 처리에서도 볼 수 있듯 슬픔과 절망을 깊이 체험한 자의 우수, 그러면서도 멍하게 풀린 눈과 사려 깊은 눈빛을 통해 고통을 힘들게 견뎌내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작품들에서 보듯이 예술가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자화상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예술가로서 불굴의 의지, 열정, 절망과 체념까지 화폭에 담아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자화상은 단순히 예술가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라는 존재의 보편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감각이 예민하고 늘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흔들리는 내면의 소유자이며 예술에 대한 열정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무모한 자들이다. 그들의 끊임없는 몸부림과 헤매임은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자기 성찰과 모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예술가들의 자화상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 것이다.

---

10) Pablo Ruiz Picasso(1881-1973) ‘20세기가 낳은 천재화가’, ‘현대미술의 출발점에 선 천재’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톨루즈, 몽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11) 김원일, <발견자 피카소>, (주)동방미디어 북스, 2002 p.17

### 3) 팝 아트에 나타난 초상

팝 아트(Pop Art)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구조를 불식시키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했던 구상미술의 한 경향을 말한다. 팝 아티스트들은 광고나 매스 미디어,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 만화 주인공 등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한다.

팝아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중문화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팝 아티스트들에게는 저명인사, 특히 영화와 음악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스타들은 그들 작품의 훌륭한 소재였다. 앙리 툴루즈-로트렉<sup>12)</sup>은 대중적 연예인 즉, 카바레와 서커스 공연자, 카페 연주회와 서커스, 파리의 몽마르뜨의 음악 홀의 무용가와 가수들을 작품화한 최초의 화가였다. 후에 앤디 워홀<sup>13)</sup>, 리처드 해밀턴<sup>14)</sup>, 제프 쿤스<sup>15)</sup>등의 현대 예술가들도 유명인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해밀턴은 보드에 사진, 오일과 풀라주로 <나의 마릴린>(도판7)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바다에서 비키니를 입은 마릴린 먼로의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또한 제프쿤스는 마이클 잭슨<sup>16)</sup>이 제공한 홍보용

---

12) Henri de Toulouse Lautrec (1865-1901) 프랑스 화가로 남부 프랑스 알비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했다. 척추를 다쳐서 불구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화가가 될 것을 결심하고 그림에 몰두했다. 파리로 올라와 드가 고흐와 친분을 맺으며 영향을 받는다. 주로 서커스, 무용장, 초상화등을 많이 그렸고 공연 포스터등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후기인상파에 속하고 색채를 다루는 테크닉과 인물성격묘사에 뛰어났다.

13) Andy Warhol (1928-1987) 192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공과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52년부터 뉴욕에서 상업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팝아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는 캠벨 수프 깡통, 코카콜라 등 상업적 소재들을 미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다.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한 사진을 캔버스에 옮기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색의 변화만 주는 것이 워홀 작품의 특징이다.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등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은 워홀 작품의 대표적 소재다. 그는 유명인들의 사진을 이용한 실크스크린 작품을 통해 현대 미국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14) Richard Hamilton(1922~)영국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 주요작품에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1956)등이 있다.

15) Jeff Koons(1955~)전위적 경향을 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대중적 인기가 있는 '키치'와 고급예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여 현대미국의 모습을 조명하였다.

16) Michael Joseph Jackson (1958-2009) 팝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대중가수. 5세 때부터 잭슨 파이브의 리드싱어를 맡았다. 1979년 발표한 앨범<Off The Wall> 은 1600만 장이 팔렸고, <Thriller> 앨범은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마이클잭슨과 버블즈>(도판8)라는 네오바로크 스타일의 조각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조각 중 한 점을 소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쿤스의 세라믹 사용은 유명인의 지위의 공허함과 허약함을 바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17)

수많은 팝 아티스트들 중 앤디 워홀은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예술가이다. 그는 소비사회의 대중매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상적이면서 통속적 이미지를 가장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작가였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닥치는 대로 작품의 소재로 삼았는데, 그런 그에게 특히 대중 스타는 매혹적인 소재거리였다. 그는 마릴린 먼로, 무하마드 알리, 말론 브란도, 재키 케네디, 엘비스 프레슬리 등 수많은 유명인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워홀의 초상화는 전통적 초상화와는 다르게 인간의 얼굴을 내면이 제거된 표면만을 제시하는 초상화를 제작하였다.(도판9) 그는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반복하여 찍어냄으로써 이미지가 가지는 개성이나 충격, 감동 등을 제거하여 무감각하고 냉담한 상태로 만들었다. 워홀의 초상작품에는 그 인물의 내면이나 지적인 탐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매스미디어와 대량유통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기계문명을 반영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초상 작품을 제작해 그 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팝아트는 순수예술의 주관주의 미학에 반발하고 현대 대중문화와 연결된 시대정신을 나타냈다. 따라서 팝 아티스트들이 시도한 다양한 초상 작품들 역시 소비 사회의 광고와 대중 매체를 긍정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전 세계에서 1억 400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문 워크 춤 스타일을 유행시켰으며 <Bad>, <Dangerous >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17) 존 A.워커, <유명자한 스타와 예술가는 왜 서로를 탐하는가>, 홍익숙 역, 현실문화연구, 2006 p.187

## 2. 작품의 표현 방법

### 1) 납작한 조각의 표현

한 예술가의 행적을 조망하는 작업은 독특한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일이다. 본인이 대상으로 하는 예술가들은 반 고흐, 프리다 칼로, 파블로 피카소, 시인 이상<sup>18)</sup>, 소설가 구보 박태원<sup>19)</sup>, 대중 가수인 마이클 잭슨과 존 레논<sup>20)</sup>이다. 예술가의 초상작품에서 이들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첫째로 미술작가

---

18) 본명은 김해경.(1910~1937) 그는 한국 근대문학사가 낳은 천재시인이자 소설가이다. 그는 문학을 통해서 인간 고통의 근원을 끊임없이 탐구하려 했던 작가였다.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난 이상은 1931년 「이상한 기억반응」이라는 시로 문단에 데뷔했다. 1933년부터 폐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1934년에는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등과 교류하면서, <조선중앙일보>에 시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빗발치는 독자들의 항의로 중단하기도 했다.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 사상 혐의로 피검되는 등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폐병으로 26년 7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로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감도」 등의 시와 「날개」, 「지주회시」, 「봉별기」 등의 소설을 통해 거의 파격적으로 한국문학의 수준을 올려놓았다.

19) 박태원(1909~1987) 서울 토박이로서 근대화, 서구화에 능동적인 중인 계층이었으며, 문화적인 식견이 높은 인텔리 층의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그의 20세 때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인한 충격은 지나친 독서에 의한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했고 매일 독서시간의 분량을 세밀히 적으며 소설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다. 그 때 적은 일기를 보면 박태원의 독서에 대한 열정과 소설 창작욕구의 강렬함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일 본으로 넘어간 박태원은 노숙과 굶주림 등의 혹독한 가난에 대한 현실인식과 한국 유학생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신주쿠 일대는 도시화의 민감 지대로 분명 박태원의 모더니즘적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이윤진<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연구>국학자료원 2004 p.22

유학 후 돌아와 집필활동에 매진하던 박태원은 6.25 전쟁 중 서울에 온 이태준, 안희남, 오장환등을 따라 월북 하였다. 그는 월북 후 국립고전 예술극장의 작가로 선정되어 주로 창극의 대본을 썼으며,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역사를 위조하라는 명을 거역한 죄로 작품 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지만 곧 작가로 복귀하여 죽을 때까지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박태원은 1965년부터 실명하고 그 후 반신불수의 몸으로 「갑오농민전쟁」을 구술로 집필하였다. - 이윤진<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연구>국학자료원 2004 pp.24-25

20) John Lennon (1940~1980) 은 비틀즈의 창립 멤버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영국의 록 음악가, 가수, 작곡가이자 평화 운동가이다. 레논은 폴 매카트니와의 공동 작곡을 통해 "로큰롤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음악을 썼다"고 평가받는다. 레논은 음악과 영화, 책, 그리고 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그의 반항적인 성질과 통렬한 재치를 드러냈다. 또한 평화 운동과 화가로서의 작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비틀즈 이후 레논은 오노요코와 함께한 <John Lennon/Plastic Ono Band>와 <Imagine> 등의 앨범과 Imagine, Give Peace a Chance, Love 같은 20세기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곡들을 통해 성공적인 솔로 경력을 쌓았다. 은퇴선언을 한 1976년부터 1980년 이후, 그는 <Double Fantasy> 라는 앨범을 들고 컴백 하지만 앨범 발매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1980년 12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과격 팬이던 마크 채프먼의 총에 맞아 암살당한다. 그의 마지막 앨범은 1981년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수상한다. 레논은 사후인 1987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1994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었다. 2008년에는 100명의 위대한 영국인을 묻는 BBC의 설문조사에서 8번째로 선정되었다. <Rolling Stone>지는 2004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50인" 중에서 레논을 38위로 선정했고, 2008년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에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위키 백과

만이 아닌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선택하여 장르를 초월한 “예술가”라는 존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로 이들이 본인의 작품, 혹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예술가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유명 예술가의 이미지를 접하는 것은 거의 모두 사진, 즉 평면의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대중 매체의 작용으로 이들을 텔레비전, 인터넷과 잡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인데도 마치 그들을 잘 아는 것처럼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작품과의 친밀감을 높여 관람자와의 소통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자 했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물을 선택한 것은 팝아트의 특징과도 닮아있는데 본인의 작품이 납작하게 조각된 것 또한 팝아트의 특징에서 비슷한 면을 찾을 수 있다. 팝아트는 평면적 색채를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명료하고 간단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화면을 단순하고 얇게 처리해 화면의 깊이와 거리, 입체감이 사라지게 만들어 ‘화면의 평면화’를 이끌어냈다. 깊이감이 없는 화면은 만화나 상표, 포스터와 같은 대중적 이미지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본인 조각의 특징은 인물의 얼굴을 환조로서 완벽하게 묘사하지 않고 납작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납작한 조각이라고 하면 부조를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의 조각은 납작하게 표현된 점에서는 부조에 가까우나 벽에 걸리지 않고, 공간에 놓이며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부조가 아닌 그저 납작하게 표현된 환조라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조각 작품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두상을 납작한 환조로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입체는 다른 방향에서 볼 때마다 외형이 달라지게 보이는 반면, 평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이미지가 고정되어 보인다. 본인은 이러한 2차원 평면의 특징을 이용하여 조각을 납작하게 평면화 하였다. 본인은 조각을 납작하게 평면화 시킴으로써 사진처럼 각 인물의 대표적인 한 순간의 고정된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유명 예술가들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책에서 발췌하여 사진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흙으로 납작하게 눌러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였다. 이런 제작 과정에서 인물의 얼굴은 입체감이 없어지고 단순해지면서 마치 캐릭터<sup>21)</sup> 같아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작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각 위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만화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작품을 평면화 시킴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예술가들의 이미지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 2) 조각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표현

본인은 예술가들의 두상을 납작하게 만든 후, 각각의 예술가의 특징을 담아내서 조각 안에 표현하기 위하여 조각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회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색은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 형태와 함께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며, 작품에 생명력을 주는 가장 큰 조형요소이다. 본인의 작품이 유명 예술가의 초상을 다룬 만큼 조각에서 색은 각 인물마다의 정서를 표현 할 수도 있고 개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색채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간 공통의 언어이며, 인간이 느끼고 있는 바를 시각언어, 조형 예술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이미지의 상승 작용을 돕는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은유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하는 사람의 기억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sup>22)</sup>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 할 수 있고, 작품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 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색을 칠하는데 있어서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이 모티브가 되었다. 사람의 얼굴을 제작하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색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예술가의 초상 조각을 캔버스 삼아 그들의 얼굴 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21) Character-소셜,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

22)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일지사 1990 p.70

표현하였다. 이는 예술가 각자의 삶과 작품을 투영하는 것뿐이 아니라 본인의 회화적 특징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프리다의 초상 【작품1】에서는 사진에서 발견한 그녀의 외형적 특징과 자화상 속에서 드러나는 상징과 색채를 본인의 작품에 차용하였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머리에 화려한 꽃을 달거나 큰 리본을 달고 있다.(도판10) 자화상 속의 우울한 모습과는 달리 사진에서 보는 그녀의 모습은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다. 자화상 속의 프리다 칼로는 보통 간소하고 장식이 없는 옷이나 인디언 의상을 입은 모습이다. 화가는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멕시코 토착민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표현했다.<sup>23)</sup> 본인은 작품에서 칼로에게 간소한 장식의 갈색 옷을 입히고 목 위에는 가시관을 걸어 붉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녀의 운명과도 같은 고통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머리위에는 원색의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등의 화려한 꽃 장식을 달았다. 이런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그녀의 암울한 고통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내고자 했다.

고흐의 초상 【작품2】에서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채색을 하였다. 본인의 색채에 바탕이 된 것은 그의 <초상화>(도판3)작품으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민트색의 파스텔 톤의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 그림을 모티브로 본인도 고흐가 입고 있는 양복의 색을 민트 색으로 칠하였고 붓 터치는 꿈틀거리는 듯한 고흐의 화풍을 참고해 나무를 그려 넣었다. 전체적 색감은 너무 우울해 보이지 않게 노란색과 녹색 등 밝은 색으로 채색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고흐의 귀가 그대로 붙어있지만 얼굴과 귀 사이에 붉은 색으로 점선을 그려 넣고 그 귀를 분홍색으로 채색하여 그의 귀가 잘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3】에서 보이는 피카소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노란색, 주황색, 연두색 등 밝고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였다. 얼굴 면을 따라 그려진 검정색 라인과 옷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무늬는 그의 입체파 시절의 작품

---

23) 안드레아 케텐만,<프리다 칼로>,이영주 역, 마로니에북스 2005 p.26

을 바탕으로 본인의 개성을 담아 채색 하였다.

존 레논의 초상 【작품4】에서는 전체적으로 갈색과 아이보리색으로 채색을 하여 차분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 존 레논의 눈물이 비처럼 흘러 구름이 되고 그 구름에서 다시 비가 내려 새싹을 키우는 장면을 표현한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틀즈의 음악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 과거의 미술 작품들도 아직까지 관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예술작품의 영원성과 순환에 관한 은유적 표현이다.

마이클 잭슨은 【작품5】 검정과 흰색의 대비되는 색으로 마치 빛과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마이클 잭슨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칠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던 피부색에 관한 은유적 표현이며, 옷은 생전에 그가 즐겨 입었던 무대의상을 참고해 검정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란한 춤을 구사하고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폭발적인 가수였지만 사실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와이셔츠 위에 그려진 성의 이미지는 그가 꿈꿔왔던 세계인 네버랜드<sup>24)</sup>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작품6】은 우리나라 1930년대 대표적인 소설가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푸른빛은 이상의 창백했던 피부색과 폐병으로 우울했던 그의 삶을 대변하는 색채이다. 어깨에 드리워진 깃털의 표현은 그의 대표작 「날개」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하였다. 본인은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라는 소설의 마지막 글귀에서 자신은 비록 무기력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비상하고 싶은 예술가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어깨 옆에 그려진 구름과 달은 날개와 아울러 하늘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작품7】은 이상의 친구이자 소설가인 박태원을 작품화한 것이다. 박태원은 1930년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실험의식이 강했던 모더니스트였다. 그는 의식의 흐름, 영화기법의 소설화, 다양한 문체 실험 등 새로운 창작 기법을 자신의 소

---

24) 마이클 잭슨의 집. <피터팬>에 나왔던 어린이들만 살고 있는 나라로 마이클 잭슨이 본인의 집을 네버랜드라 이름붙인 것은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이로 남고 싶어 했던 그의 소망이다.

설 창작에 수용하였다<sup>25)</sup> 박태원의 머리는 1930년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단발 모양의 모던한 헤어스타일로 표현하였고 의상은 넥타이까지 맨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와이셔츠 옷깃에 나무와 자전거를 그려 넣고 색을 고동색과 녹색으로 토속적인 느낌이 들게 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월북한 작가 박태원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예술가마다 삶과 작품이 다르듯이 본인 작품의 색채도 그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색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조각에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한 것은 예술가의 걸모습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예술가들을 해석하고자 독특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술가라는 존재의 공통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3) 안경으로 가려진 예술가의 눈

예술가들과 예술애호가들은 예술 작품 자체의 신성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예술작품에 혼이 담겨있다고 믿는다. 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손길뿐만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술은 기적이다. 즉, 예술 작품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예술가는 신의 은총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들은 예술가의 재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술가에 대해 기적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발터 벤야민의 표현대로 예술에 후광이 드리워져있는 것이다.<sup>26)</sup>

사실 “예술가”라는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수수께끼에 휩싸인 알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결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신비로움이란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25) 정현숙 <박태원 문학연구>,국학자료원 1994 pp.63-76

26) 한스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박세연 옮김, 21세기 북스, 2009, pp.24-25

설명되는 순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신비감은 없어지고 작가는 별거벗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예술가들은 안경을 쓰고 있다. 원래 안경은 물체를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 안경은 렌즈에 색을 칠해 오히려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리는 도구로써 사용된다. 그 안경 위에는 그들의 작품 속 글귀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의 힘든 삶을 토로하듯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존 레논의 초상 【작품4】에서 안경은 그의 눈을 볼 수 없게 색을 칠했으며 안경 위에는 ‘Let It Be’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는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뜻은 “그대로 두어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유명세와 관심에 지친 존 레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의 부인인 요노요코<sup>27)</sup>를 조각하여 넣었는데 안경의 나머지 한쪽에서 비치림 흐는 눈물은 그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존 레논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초상 【작품5】의 안경 위에는 ‘You are not alone’이라고 적혀있다. 이 역시 마이클 잭슨의 노래의 제목이다. 그는 팝의 황제라 불리며 음악에서 수많은 기록 갱신과 유행을 만들어 냈지만 아동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루머와 성형 중독 등 수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루머에 시달리며 많은 공격도 받았지만, 그가 사망했을 때 전 세계의 팬들이 그를 애도하고 슬퍼했다. 안경 위에 쓴 글귀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하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피카소 【작품3】의 안경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3면이 나뉘어져 입체로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입체파를 상징한 것이다. 피카소의 안경 위에는 여러 각도에서 본 눈을 그려 넣었고, 다른 면에도 입체파를 상상하게 하는 사람의 얼굴모습을 원색의 다양한 색채로 그려 넣었다. 이 작품은 유일하게 안경

---

27) Yoko Ono(1933~)일본 출신의 반전운동가·여성운동가·전위예술가. 1960년대 국제적 전위예술운동인 플럭서스에 참여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는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다양한 반전·여성운동을 하고 있다.

에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카소는 작가로서의 삶의 고통을 표현하기 보다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려 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안경에는 눈물대신 사물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의 제 3의 눈을 그려 넣었다.

이상【작품6】의 안경과 구보【작품7】의 안경에서는 그들의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천재”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적었다.

“박제된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천재에게 박제가 피할 수 없는 것인것과 같이 위대한 사업에는 언제나 비난이 수반되는 것이다.” 28)

이 글귀 안에는 자신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서 생각했던 그들의 다소 자아도취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세상이 예술가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 고독과 자괴감이 담겨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지금같이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안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예술가들의 눈을 가려버림으로써 예술가들의 속성, 즉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로서의 애환과 내면을 의미한다. 예술가들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 안경 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숨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의 독백인 것이다.

사실 예술가의 초상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무의식적인 모델이었음을 인식하였다. 작업의 단계에서 작가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작가 자신의 모습이 작품에 투영된다는 예술의 기본 철학을 몸소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예술가들의 초상을 도구로 삼아 표현한 안경위로 나타나는 글귀와 상징

---

28)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수염」 중 일부분

들은 본인의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Let It Be’, ‘You are not alone’ 같은 글귀는 본인이 그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이기도 한 것이다.

#### 4) 영상으로 표현된 자화상

예술가에게 자기 자신이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장 미워하며, 또한 궁금하며 탐구하고 싶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술적인 작업의 영감을 얻곤 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자신의 삶을 그리는 것이다.

과거의 예술가들의 초상은 전통적 방식인 조각으로 형상화하였다면, 현재 작가로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본인의 자화상은 영상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하나의 멈춰진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고 움직이는 영상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화상은 사진을 이용한 몽타주<sup>29)</sup>를 바탕으로 한 스톱모션<sup>30)</sup>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조금씩 움직이는 본인의 사진을 연속 촬영 한 뒤 그 사진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영상에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옷차림으로 등장하며, 하나같이 안경을 쓴 채 눈을 가리고 있다. 안경의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감정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

---

29) ‘몽타주(montage)’의 사전적인 뜻은 따로 따로 촬영된 화면을 효과적으로 떼어 붙여서, 화면 전체의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는, 영화나 사진의 편집구성의 한 수법 즉 화면구성이다. 프랑스어로 ‘조립하다’는 뜻이고 독일어로는 ‘조립, 조성, 세우다’는 뜻이다. 그 자신만의 독특하고 단일한 순서와 리듬감이 있는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를 조각내거나 잘라 붙이는 편집기술이다. 몽타주의 주된 기능은 ‘공존’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영상에 초점을 맞추어두고 그 주위를 관련이 있는 영상으로 에워싸서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거나 복합적인 관점, 즉 내면과 외면생활의 동시적 표출이나 삶의 다원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몽타주란 공간을 예술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적인 시와 공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기법으로 이용되지만 이치에 맞는 예술적인 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각 장면을 종합적으로 의미 있게 전체가 예술적으로 조립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윤진<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연구>국학자료원 2004 p.55

30) 스톱모션(stop-motion) 기법은 물체를 한두 프레임씩 노출시켜 촬영하는 영화 촬영 과정의 일종인데 물체를 1인치씩 옮기고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낸다.

기도 하는 이중적 도구로서 표현된다. 영상에는 화면을 4분할로 나누어 반복된 동작을 하는 본인의 얼굴이 비춰지면서 관객을 응시하는 본인이 나타난다. 수많은 본인의 얼굴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영상이 반복한다. 영상 속 “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스타를 꿈꾸기도 하며 창작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기도 하다. 본인은 피카소의 초상 【작품3】에 사용되었던 입체안경을 쓰고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바라는 본인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안경 위에는 별, 눈물, 꽃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은 여러 명의 “나”가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봉투를 다시 본인이 비행기로 접어서 하늘로 날리는 장면과 본인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가 새로 접혔다가 다시 실제의 새로 변하여 날아가는 장면이다. 이는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된 현실에서 자유롭고 싶은 본인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예술가의 자화상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어 낸 작품이 곧 자신임과 동시에 자신을 대신하는 또 다른 자아와의 관계 맺기를 의미한다. 작품에서 자아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말 걸기 즉 타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 5) 일상의 드로잉

작품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노동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가들에겐 일상이다. 일상의 반복이 삶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이야말로 본인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본인이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기록한 드로잉은 무엇인가를 그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예술가의 내면세계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은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의 주변 사물들과 생각을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의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일상의 사소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삶'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녹여내어 유기적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때 난로에 기름이 다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 추위에 떨다가 난로를 드로잉 한 후 그 아래 '춥다'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 뒤에 그 그림을 다시 보니 너무 추워 보여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색으로 주황색으로 색칠 한 후 <뜨거운 것이 좋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어느 날은 혼자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하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고독감을 느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이었을 것인데 물끄러미 바라본 맥주 캔에 프린트된 별 모양의 로고가 마음에 들어 맥주 캔을 그리고 그 별 모양의 로고를 따서 <외로운 밤하늘에 떠있는 노란색 별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드로잉들은 단순히 본인의 근처에 있던 사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해 그 당시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들, 즉 추위와 외로움, 고독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점심 약> 드로잉은 그때 당시 본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약봉지 안에 들어 있는 약 중에 점심 약만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린 그림이다. 이는 혼자만 다른 점심 약에서 본인과의 동질감을 느꼈기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휴지, 칫솔 등 주변의 것, 혹은 일상의 것들을 표현한 이 작품들은 본인의 삶에서 포착된 것들인데, 드로잉과 함께 간단한 글로 사물의 속성과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였다. 이렇게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물들은 단순히 사물이 아닌, 본인의 삶에서 포착된 하나의 사건들이었다.

### 3. 작품 분석



【작품1】 Frida Kahlo, FRP,안경,레진, 65x16x72cm, 2010

## 【작품1】

제목: Frida Kahlo

재료: FRP,안경,레진

크기: 65x16x72cm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프리다 칼로의 사진과 그녀의 그림들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레진으로 목에 가시관과 머리 위의 꽃 장식을 만들어 붙인다. 조각이 완성되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내용 - 본인의 작품 프리다 칼로의 초상조각은 그녀의 사진과 그녀가 그린 자화상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제일 먼저 프리다의 얼굴에서 가장 큰 특징인 진하고 검은 눈썹이 안쪽 미간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녀의 목에는 가시관이 걸려있다. 이는 그녀를 움아맨 운명 같은 아픔을 상징한다. 가시에 찢린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자신의 아픔을 숨긴 듯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가린 안경위에서는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린다. 눈물과 핏방울은 색깔만 다른 채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녀의 눈물과 육체적 고통의 상징인 붉은 피는 그녀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녔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오른쪽에 상처 입은 피 흘리는 심장의 의미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충격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체적 고통의 표현이다. 남미의 화가로서 처음으로 루브르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영예도 안았지만 미술계에서의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이미지화하여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2】 Vincent van Gogh, FRP,안경,레진, 70x17x72cm, 2010

## 【작품2】

제목: Vincent van Gogh

재료: FRP,안경,레진

크기: 70x17x72cm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반 고흐의 사진과 그의 그림들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레진 입에 문 파이프 담배를 만들어 붙인다. 조각이 완성되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내용 - 끊임 없는 발작과 정신병에 시달렸고 자신의 귀까지 잘랐다는 고흐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고흐의 자화상 그림에서 그의 화풍을 옮겨왔다. 고흐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흔들리는 나무의 표현을 민트색 옷 위에 그려넣었고 덥수룩한 수염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만큼 귀의 색을 분홍색으로 표현하였고 옆에 빨간색 핏자국을 그려 넣어 그의 귀가 잘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쓰고 있는 안경에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해바라기를 그려 넣었다. 해바라기는 고흐의 희망을 상징하는 뜻으로 여전히 왼쪽 안경에는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 본인은 이 작품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할 만큼 생전에 고통스러워했던 고흐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싶었다.



【작품3】 Pablo Ruiz Picasso, FRP,안경, 46x16x40cm, 2010

### 【작품3】

제목: Pablo Ruiz Picasso

재료: FRP,안경

크기: 46x16x40cm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피카소의 사진과 그의 그림들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을 매끈 하게 한다. 조각이 완성되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내용 -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피카소는 고희와는 다르게 생전에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크게 성공하였다. 피카소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이 대단했던 인물이었다. 다른 예술가들이 자신에게 자극이 되는 그림을 그리거나 신기한 물건을 가져온다면 바로 자신의 화실로 가서 작품에 몰두했다.

이는 계속 실험을 하지 않으면 낡은 화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온 것이었을 테지만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자 탐구를 계속했던 진정한 예술가 였다. 피카소를 모티브로 한 본인의 작품에선 피카소의 입체과 작품의 화풍을 옮겨왔다. 그의 외형은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었고 쓰고 있는 안경 또한 3면으로 된 입체적인 안경을 선택하였다. 안경위에 그려있는 눈은 앞과 옆, 다 각도에서 보는 눈의 표현으로 입체과 그림을 상상하도록 그렸다. 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피카소의 열망의 눈동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4】 John Ono Lennon, FRP,안경,레진, 38x12x45cm, 2009

#### 【작품4】

제목: John Ono Lennon

재료: FRP,안경,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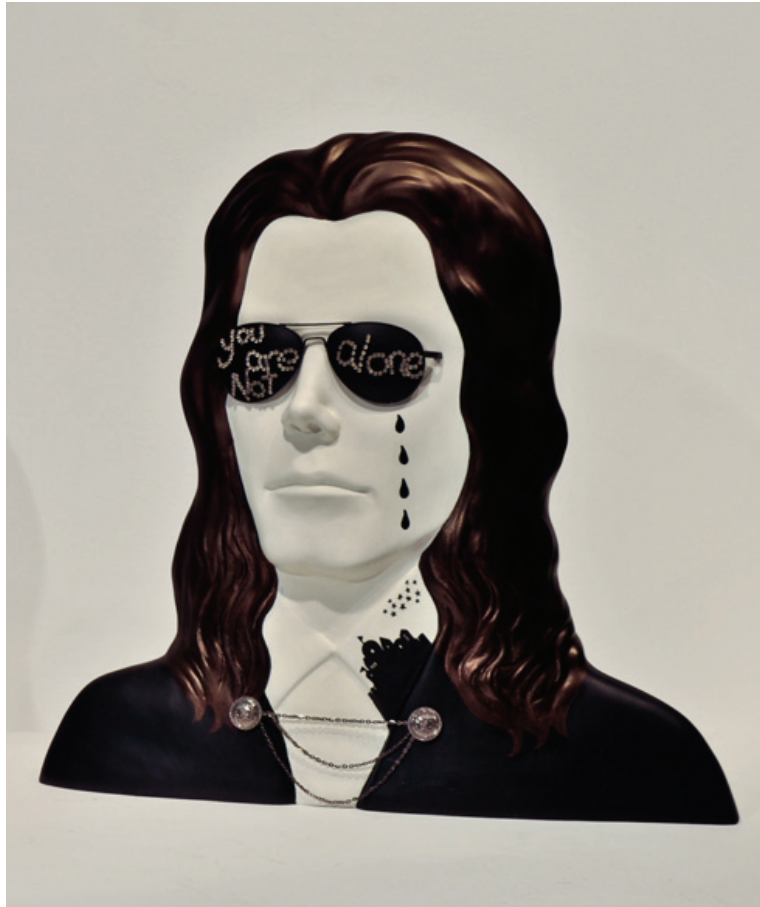
크기: 38x12x45cm

제작연도: 2009

제작방법 - 존 레논의 사진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레진으로 머리위에 오노요코를 만들어 붙인다. 조각이 완성되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 내용 - 존 레논과 오노요코의 사랑은 세기의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는 오노요코의 전시회에서 그녀를 만난이후 동지들인 비틀즈 멤버들과도 멀어질 만큼 그녀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낀다. 오노요코는 비틀즈를 해체시킨 마녀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녀를 향한 존 레논의 사랑은 맹목적이었다. 본인이 제작한 존 레논의 작품에도 오노요코가 등장한다. 레논의 머리위에는 검은머리의 한 여자가 서있다. 이는 오노요코를 표현한 것인데 그녀의 발아래로 별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존 레논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안경위에는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었던 'Let it be'라는 글씨가 써져있다.

“그냥 그대로 두어라”는 의미가 유명세와 관심에 지친 그의 말인 것 같다. 하지만 레논이 흘린 눈물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내린다. 그 비는 새싹을 싹 띄운다. 이는 그가 죽은지 3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비틀즈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고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순환과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5】 Michael Jackson, FRP,안경,단추, 체인, 큐빅, 45x12x43cm, 2009

## 【작품5】

제목: Michael Joseph Jackson

재료: FRP,안경,단추, 체인

크기: 45x12x43cm

제작연도: 2009

제작방법 - 마이클 잭슨의 사진을 스크랩 한 후 흑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마이클 잭슨의 옷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추와 체인을 달아준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큐빅을 붙여 글씨모양을 만들어준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 내용 - 팝의 황제로 추앙받지만 아동 성추행, 백인이 되고 싶은 흑인 , 성형중독과 피부가 썩어들어간다는 이야기등 살아생전 온갖 루머가 끊이질 않았던 마이클 잭슨의 삶은 그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늘 평화를 위해 노래를 만들고 공연을 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앨범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아직까지도 수많은 억측과 의문에 쌓여 있다.

안경위에 “you are not alone” 이라는 글씨는 그의 노래제목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너무 많으며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의 노래를 듣고 그를 기억한다는 뜻을 담았다. 그리고 옷깃위에 그려진 성은 그의 저택 네버랜드를 상징한 것이다.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처럼 항상 어린이로 머무르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다.



【작품6】 시인 이상, FRP,안경,레진, 86x21x90cm, 2010

## 【작품6】

제목: 시인 이상

재료: FRP,안경,레진

크기: 86x21x90cm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이상의 사진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레진으로 어깨위에 날개를 직조한다. 조각이 완성되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 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 내용 - 본인의 작품에서 이상의 이미지는 그의 대표작 <날개>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안경에는 그의 소설 날개에서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라는 것을 언급한 글귀를 써 넣어 세상과 현실에 묶여 마치 박제된 것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가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냈다. 소설의 마지막 구절에서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날자.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라는 글귀에서 본인은 무기력하지만 다시 한번 날아보고 싶은 예술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깨에 길게 드리워진 날개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 옆에 그려진 구름과 달의 모습으로 날개와 함께 하늘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상의 창백했던 피부색을 통해 전체적인 색감인 흰색과 푸른색은 폐병으로 인해 창백했던 이상의 피부색과 그의 우울함을 대변해주는 색이다. 뼈죽이 선 머리카락 위에는 제비를 그려 넣어 그가 운영하였던 다방의 이름 ‘제비’를 표현하였다.



【작품7】 소설가 구보 박태원, FRP,안경,레진, 86x21x90cm, 2010

## 【작품7】

제목: 소설가 구보 박태원

재료: FRP,안경,레진

크기: 80x20x70cm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박태원의 사진을 스크랩 한 후 흙으로 만든다.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그것을 FRP로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다. 안경을 사포질하여 그 위에 컬러링 한다. 안경을 에폭시로 부착해 준다.

작품 내용 - 구보의 특징은 일명 갑바 머리라고 하는 머리모양과 둥근 안경이다. 구보는 일본에 유학시절 상당히 유행에 민감했으며 아주 말쑥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넥타이까지 맨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안경위에는 “천재에게 박해가 피할 수 없는 것인것과 같이 위대한 사업에는 언제나 비난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그의 수필 속의 한 부분을 적어 그의 자아도취적 이지만 당당했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일본 유학 후 돌아와 집필활동에 매진하던 중 월북 하였다. 그는 월북 후 역사를 위조하라는 명을 거역한 죄로 작품 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지만 실명을 하고 그 후 반신불수의 몸으로도 「갑오농민전쟁」을 구술로 집필하며 죽을 때 까지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본인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박태원의 마음을 고동색과 녹색으로 자연적이고 토속적인 색감으로 표현하였으며, 와이셔츠 옷깃에 나무와 자전거를 그려 넣고 머리 위에 고향의 하늘을 그려 넣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보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작품8】 Artist's way, video, 1min 45sec, 2010

## 【작품8】

제목: Artist's way

재료: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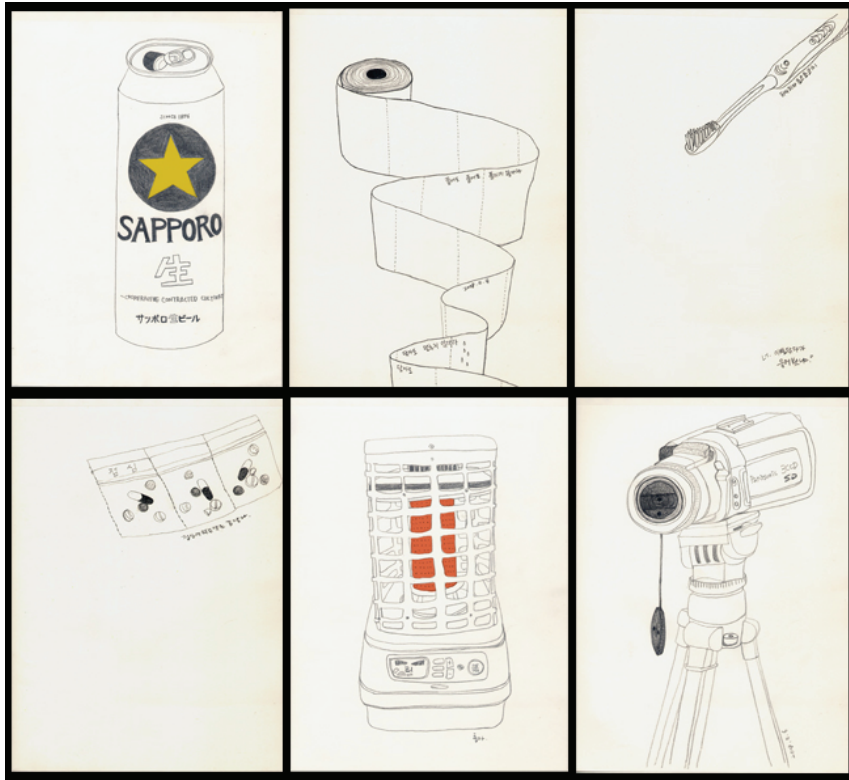
크기: 1min 45sec

제작연도: 2010

제작방법 - 여러 가지 안경을 사포질 하여 컬러링 한 후 본인이 직접 그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정지된 사진을 움직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임을 주어가며 찍는다. 본인의 사진을 프린트 하여 그곳에다 드로잉을 한 다음 봉투에 넣고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새를 접은 후 종이를 구기는 과정을 촬영 한다. 이 모든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한다. 포토샵(Adobe Photoshop)으로 사진을 하나씩 테두리를 제거 한 후에 에프터 이펙트 (Adobe After Effects)로 옮긴다. 이야기에 맞춰 사진을 붙여가며 움직임을 준다. 몇 개의 장면은 4분할로 복사하여 반복시킨다. 전체적 이야기를 에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한다.

작품 내용 - 영상 안에서 본인은 다른 조각 작품에서와 같이 안경을 쓰고 등장한다. 영상에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은 계속 같은 동작의 반복과 다양한 옷차림, 하나같이 안경을 쓴 채 눈을 가리고 있다. 영상 속 “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유명한 예술가를 꿈꾸기도 하며 창작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기도 하다.

여러 모습의 나의 분신들은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영상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담은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 날아가고 새로 변신해 날아가기도 한다. 날아가는 이미지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억압된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9】 드로잉, 종이에 연필, 18x25cm, 2008-2009

## 【작품9】

제목: 드로잉

재료: 종이에 연필

크기: 18x25cm

제작연도: 2008-2009

제작방법 -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들을 즉각적으로 종이에 그려낸다.

작품내용 - 왼쪽부터 <외로운 밤하늘에 떠있는 노란색 별 하나>,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더라>, <치카치카초코초코치>, <점심 약>, <뜨거운 것이 좋아>, <카메라>. 본인의 드로잉의 주제는 다양하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그림을 그리고 혼자서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캔을 드로잉하고 추운 겨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난로를 드로잉하기도 했다.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드로잉한 것도 있다. 그리고 그냥 연필을 들어 아무계획 없이 그려나간 드로잉도 있다. 마치 일기를 쓰듯 본인의 삶을 그려 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과정에서 본인은 무엇인가를 그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본인의 내면세계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것은 본인의 무의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드로잉들이며 이것은 본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된 작품들이다.

### Ⅲ. 결 론

본인은 과거의 예술가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기록을 보면서 존경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작품에 감동받으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치 않다는 현실을 깨닫고 내가 꿈꾸는 예술가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런 사고의 과정에서 제작하게 된 유명 예술가의 초상조각 작품과 예술가로서 본인의 자화상,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드러낸 드로잉작품 등 본인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인의 작품에서 다른 예술가의 초상조각 작품의 모델은 프리다 칼로, 반 고흐, 피카소, 이상, 구보 박태원 그리고 대중가수인 존 레논과 마이클 잭슨이다. 본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예술가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대중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

초상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해 현재에도 한 인간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드러내는 중요한 예술표현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예술가 스스로도 훌륭한 작품의 소재였으며 팝아트의 등장으로 유명인들을 묘사하는 초상작품의 제작도 본격화 되었다.

본인 역시 과거 예술가의 얼굴을 조각으로 표현하였지만 이는 완벽하게 환조로 표현되지 않고 납작하게 조각함으로써 평면화시켜 우리가 늘 사진에서 보아왔던 인물들의 대표적인 한 순간의 고정된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했다. 현재의 예술가로서 본인의 초상은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본인의 자화상이라 볼 수 있다. 영상 안에는 수많은 본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내면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담아낸 드로잉은 본인의 삶에서 포착된 하나의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본인의 작품은 결국 “예술가라는 존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즉

예술가의 삶,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노동을 하며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앞으로 예술가로서 살아가야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예술가의 존재는 어떤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즉 본인의 작업들은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그 대상은 먼저 본인 자신이며, 이에서 멈추지 않고 작가 일반으로 나아간다. 본인이 제작한 수많은 예술가들은 단순히 본인의 오마주가 아니고 앞서 삶을 살아왔던 “예술가라는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품을 분석해 보니 본인의 작품이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함, 고통스러움만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나약한 엄살로 다가오기도 하고 유치한 자아도취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내면과 헤매임은 진정한 예술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진정한 예술가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의 쉽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는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세상에 던지는 존재이다. 본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 하는 이유도 역시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술 활동이 본인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

본인은 아직 미약하지만 계속 무엇인가 그리고 만들며 창조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본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꾸준한 성찰과 모색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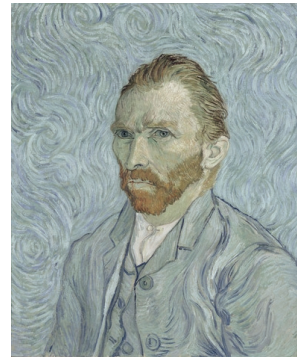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도판1>에리고의 두상, 에리고, B.C 7000년경, 요르단 암만 고고학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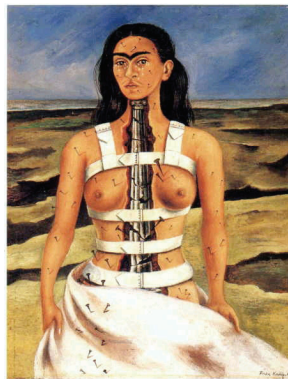
<도판2>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15세기경, 패널에 유채, 77x53cm, 루브르 박물관 소장



<도판3> 반 고흐,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54.5x65cm, 오르세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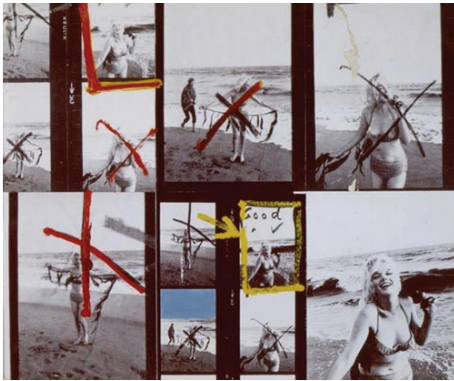
<도판4> 반 고흐, 귀를 자른 자화상, 1889년, 캔버스에 유채, 60x49cm, 런던 코돌드 미술관 소장



<도판5>프리다칼로, 부러진척추, 1944년, 캔버스, 유화, 40x30.7cm, 멕시코시티, 돌로레스 올메도소장



<도판6> 피카소, <자화상>, 1901, 유채, 81x60cm, 파리, 피카소미술관



<도판7> 리차드 해밀턴, 나의 매릴린, 1965년, 사진프린트 스텐실, 84.3x69cm



<도판8> 제프쿤스, 마이클잭슨과 버블스, 1988년, porcelain/ceramic blend 106x177x83cm



<도판9>앤디워홀, 25개의채색 마릴린, 캔버스에아크릴릭,208.9x169.5x5.5cm, 텍사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소장



<도판10>프리다 칼로의 사진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원일 <발견자 피카소>, (주)동방미디어 북스, 2002
- 민길호 <빈센트 반 고흐 내영혼의 자서전>, 학고재, 2000
- 안상성 <초상화란 무엇인가>, 학문사, 1998
- 이윤진 <박태원 소설의 서술기법연구>, 국학자료원, 2004
- 정금희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도서출판 재원, 2003
-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일지사, 1990
- 정현숙 <박태원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 조선미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2007
- 텍스, 피에르 <창조자 피카소>, 김남주역, 한길아트, 2005
- 브로샤이 <피카소와의 대화>, 정수경 역, 2003
- 아브릴,니콜 <얼굴의 역사>, 강주현 역, 작가정신, 2001
- 양투안 앙테르생, 베로니크 <새롭게 이해하는 한편의 미술사> 최애리 역, 도서출판  
마티, 2005
- 에빙, 한스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박세연 옮김, 21세기 북스, 2009
- 위커, 존 A. <유명짜한 스타와 예술가는 왜 서로를 탐하는가>, 홍옥숙 역,  
현실문화연구, 2006
- 케텐만, 안드레아 <프리다 칼로>, 이영주 역, 마로니에북스, 2005
- 킬, 다니엘 위음 <예술에 관한 피카소의 명상>, 조정옥역, 사계절, 1999
- 티메 출판사 편집부 위음 <마이클 잭슨, 특별한 운명>, 문신원 역, 2009
- 펠, 데릭 <반 고흐, 사랑과 광기의 나날>, 최일성 역, 세미콜론, 2007
- 피들러, 콘라드 & 야마자키 <예술활동의 근원>, 이병용역, 현대미학사, 1997

## ABSTRACT

A study of portraits on the artist's identity and lives

Kim, min

Department of Sculpt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paper describes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the art works which was exhibited at the author's 2010 graduation exhibition as a part of fulfillment for the Masters of Arts. The implication of the current work as well as the author's future direction was also addressed.

The author's art works stem from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 toward the artists' identity, their passion and agony, as well as the process they go through as an artist. The author, like many other young artists, dreamed to become the artists who touch many people's souls and lives in general and artists' in particular. However, the author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living as an artist was not an easy journey and the author's ideal thoughts seemed to be just a dream as times goes by due to the mental and physical agony and pa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art works sometimes made the author wonder about the primary purpose of

work and the identity as an artist. As the question was further developed, the author became curious about the historically important and famous artists' lives. Such question have the author revisited the world-renowned artists' lives and art works such as Vincent van Gogh's and Frida Kahlo's. These artists are well known for the dramatic and traumatic life experience and journeys. What's amazing is that, their dreadful lives never stoped them from creating the beautiful art works and never stop them from driven away from their passion toward art. They became the author's mental and professional mentors. Through this process, the author became interested in reframing the artists' lives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and creating their busts.

The author's art works are based on the identity and the life of the artist as an artist. In the author's viewpoint, the artists' art works should not be viewed separately from their lives. In other words, the art works and the artists' lives are intertwined. Therefore, through the exhibition, the author attempted to exhibit such interconnected aspect. Simply put, the author's exhibit has two primary purposes. First, the art works exhibited sought to question the identity and existence of the artists through a portrait of artist. Second, the author want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artists, no matter how famous they are, are also human beings like us - they are not quite different from people, but they are with us.

The current paper is composed with the introduction section, three chapters and the conclusion section. The introduction chapter described in detail the author's primary purpose of the art works exhibited and its base including

the personal interest. The first chapter was about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introduced the history and the basic concepts of portrait arts. In this chapter, the author studied how the artists like Vincent van Gogh portrayed themselves. Further, the author linked the author's own art works to other pop-artists' art works which handling the famous artists. The second chapter focused on the author's exhibited art works. The main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author's art works is that the author utilized the flat sculpture as the primary artistic tool. Also, as found in all art works at the exhibition, every sculpture wears a pair of glasses. The paper described the behind meaning of the pair of glasses. Lastly, the author analyzed the video and the author's own drawings which are based on the author's daily life.

The final chapter described the each art work exhibited at the exhibition, the procedure, as well as the content of the exhibit. The conclusion section summarized the exhibition, limitation, implication of the current art works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 as a young artist.